

# 마가렛 조 잇는 '웃음 전도사'

## 차세대 한인 스탠드업 코미디언 에스더 구 vs 헬렌 홍



에스더 구



헬렌 홍 Photo=Corey Hayes

우리는 심각한 민족일까, 웃기는 겨레일까?  
오랫동안 양반계급은 근엄한 유교사상의 영향권 아래 있었지만, 서민층의 예술엔 해학과 풍자 정신이 살아 숨 쉬었다. 한 많은 민족임을 자처하고 있는 민족이어서도 웃음의 욕구는 오히려 더 강할지도 모른다.

우디 앨런은 그의 영화에서 '비극+시간=코미디'라고 말한 적이 있다. 거리두기와 세월이 어떠한 비극도 순화하고 웃음으로 비둘 수 있다는 말이다. '세월이 약'이라는 유행가 가사도 마찬가지다.

웃음의 DNA는 태평양 건너에도 뿌리 내렸다. 미국에서 이미 걸출한 한인 여성 코미디언 마가렛 조가 등장해 정체성, 가족, 섹스, 정치 소재까지 두루 웃음거리로 포착했다.

뉴욕 스탠드업 코미디계를 종횡무진하는 에스더 구와 헬렌 홍, 마가렛 조를 잇는 한인 2세 코미디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발적인 섹스를 주제로 웃음을 유발하는 에스더 구는 "코미디는 비극에서 비롯된다"고 우디 앨런과 유사한 생각이다. 그는 "한인들은 유대인처럼 고통스러운 역사를 지닌 민족이다. 웃기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은 바로 우리 엄마"라고 말한다.

어릴 적 바이올린과 오보에를 배우던 그는 악기가 아니라 목소리로 대중과 소통하고 싶었다. 무명시절 불만회사 '사피즈'의 판매사원으로 일했고, 고객을 끌기 위해 웃음 거리를 찾다가 코미디언이 됐다.

구씨는 보스턴 코미디 페스티벌과 뉴욕 언더그라운드 코미디 페스티벌에 참가해오다 2006년 NBC '다양성 쇼 케이스 스탠드업'에서 베스트 코미디언 10인에 선정됐다.

헬렌 홍(한국이름 홍혜승)의 주 소재는 인종차별과 데이트 관습을 파헤치는 것. 카니 정 같은 앵커를 꿈꾸던 홍씨는 대학에서 정치학과 커뮤니케이션을 복수 전공했다.

NBC-TV 프로듀서로 취직은 했지만, 언론계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홍씨는 곧 우울증에 빠졌고, 기분전환용으로 코미디클럽에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코미디언이 된 케이스다.

홍씨는 2007~08 뉴욕 퍼니스트 스탠드업 대회 결선진 출자로 NYC 언더그라운드 코미디페스티벌 참가했다.

"이제 코미디 4년차지만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 같아요." 홍씨는 5월 중 뉴저지 버겐PAC 카바레룸에서 맨해튼 조 프랭클린 코미디클럽, 타임스퀘어 아트센터, 소호의 빌리지 램턴 등 무대에 오른다.

그는 오는 28일 오후 9시 30분엔 맨해튼 코믹스에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부킹(booking)을 소재로 청중을 즉석에서 맺어주는 'K-데이트 코믹스'를 공연할 예정이다.

박승희 기자

문화 기사판



이소영씨 미술 특강

메트로폴리탄뮤지엄(82nd St.@5th Ave.) 한국미술 담당 이소영 큐레이터가 17일 오후 1시 뮤지엄 내 그레이스라이니에 오디토리움에서 한국미술 특강을 연다.

이씨는 이날 지난 3월 17일부터 뮤지엄 내 한국실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르네상스의 미술, 1400~1600'전을 해설하고 비화를 들려준다. 1시45분부터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배용준·이미숙·전도연이 출연하는 영화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2003, 124분·사진)를 상영한다. www.metmuseum.org.

박지용씨 개인전

화가 박지용씨가 12일부터 첼시의 플라디에이 드갤러리(530 West 25th St. 4th Fl.)에서 개인전 '제4의 인공정원(The 4th Artificial Garden)'을 열고 있다. 박씨는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 졸업 후 뉴욕시립대학교에서 다시 석사를 받았다. 전시는 6월 6일까지 계속된다. 646-230-0056.

백남준 '전시' 콘서트

백남준씨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첼시의 제임스 코한 갤러리(533 West 26th St.)에서 16일 오후 5시30분 마가렛 조, 코난 오브라이언, 마가렛 조, 공인 '케이 지/남준/플러시스'가 열린다. 탄은 백씨의 절친한 사이였던 전위음악가 존 케이지의 탁월한 해석자로 알려진 인물. 이날 공연은 6월 열리는 제53회 베니스비엔날레 개막식에 선보일 예정인 작품으로 백씨에게 헌사하고 있다. 공연은 무료. 212-714-9500.

	에스더 구	헬렌 홍
출생지	시카고	서울
10살 때 꿈	낯엔 비서, 밤엔 성경교사	배우
코미디언을 결심한 때	2살	2005년 NBC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마가렛 조, 코난 오브라이언
롤 모델	아멜리아 베렐리아(동화책 등장 인물)	그녀를 사랑한다. 매우 재능있고, 용기있는 인물이다. 수많은 역경을 헤치고 성공했다. 수많은 장벽을 깬 인물이다.
마가렛 조는	선구자다. 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이 대답하고, 웃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코미디는 비극에서 출발한다.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도시, 뉴욕에 사는 덕분에 다양한 인종과 여성 코미디언이 있다.
아시아계 여성 코미디언으로 편견에 부딪혔나	아시아인은 보통 수줍고 조용하며 진지하다는 편견이 있다.	인종 차별과 데이트에 관한 내용
코미디 장기는	기타를 치며 음란한 노래를 부르는 것	매사추세츠대학교 정치학·커뮤니케이션
출신 학교	일리노이대학교 마케팅	심아의 음식. 어느 시간이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뉴욕을 좋아하는 이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 데이트 상대가 싫어도 언제나 피할 수 있다. 어떻게 나를 다시 찾을 수 있겠나?	5월 21일 오후 7시 '올스타 코미디'@타임스퀘어아트센터(669 8th Ave. 212-586-7829)
공연 일정	5월 22, 23일 오후 10시 @이스트빌 코미디 클럽(85 East 4th St. 212-260-2445)	